

금강대·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그룹 워크숍

Part 1. 강사 프로필

■ Rahul Dhodapkar (남) : 예일대학교

Rahul Dhodapkar is a consulting engineer with MongoDB, a global database startup based in New York City. Before joining MongoDB, Rahul earned his degree in Computer Science from Yale University, where he published research on investigating the genetic factors that might cause autism. With MongoDB, Rahul has had experience working with engineers from companies such as Facebook and Microsoft, as well as with business leaders in a variety of industries. Rahul is especially interested in information security and understanding team dynamics, and hopes that you will be too!

라울 다답카는 뉴욕시에 본사를 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스타트업 회사인 MongoDB에서 근무하는 컨설팅 엔지니어입니다. MongoDB에 합류하기 전에 예일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학위를 받았으며,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울은 MongoDB에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기업의 엔지니어 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라울은 정보보안과 팀 역학의 이해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Diana Le Dang (여) : 예일대학교

Originally from Los Angeles, California, Diana made her way to the east coast and is a recent graduate of Yale University (MS '16). Prior to graduation, she engaged in a round of interviews after being recruited by UCLA Medicine, Mount Sinai Hospital,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and Yale New Haven Hospital, to join their intensive care team. She accepted a position a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morial Medical Health System and UMassWorcester School of Medicine as an Advance Practice Provider and Surgical Intensivist for her interest in working in surgery. Before matriculating into Yale University, s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cquiring a degree in Environmental Science (MPH '12) and in Biomedical Engineering (BS '09). She plans to return for her doctorate specializing in Anesthesia in 2017 and hopes to serve as a tenured faculty member and precepting clinician in Anesthesiology.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다이애나는 최근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UCLA 의학,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 뉴욕 장로교병원, 예일 뉴헤이븐 병원과 인터뷰한 후 집중 치료 팀에 합류하라는 제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수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매사추세츠 대학의 기념 의료 보건 시스템 및 UMASS 우스터 의학 학교에서의 사전 실습 제공자 및 중환자 전문 치료사 직함의 제의를 선택했습니다. 예일대에 입학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환경 과학 및 생명 공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에 마취 전문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 더 공부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마취학 분야의 전임 임원으로서 근무하고자 합니다.

■ Tom Murphy (남) : 뉴욕 타임즈

Tom Murphy is a software engineer based in New York City. He has worked at companies both large and small, from small successful startups (one a credit card company processing over a billion dollars of transactions per year), to midsize organizations like Brown University, to large companies like The New York Times. He is an expert in functional programming and concurrency. He develops web servers for rich web applications, as well as highly concurrent applications for data and media exchange in the cloud. Tom is an alumni of The Recurse Center, known as "the best programming community in the world."

토마스 머피는 뉴욕시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토마스는 작은 신생 기업(연간 거래 억 달러 이상을 다루는 신용 카드 회사)부터 브라운 대학 같은 중간 규모의 조직 및 뉴욕 타임즈와 같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동시성의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웹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및 미디어 교환을 위한 병행 프로그램 웹 서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로 알려진 Recurse 센터의 졸업생입니다.

■ Sangwoo Lee (남) : 하버드대학교

Sangwoo Lee is a recent graduate of Harvard University, with a Masters of Education in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He went to Grinnell College in Iowa where he studied economics.

이상우는 최근, 국제 교육 정책 교육 석사학을 하버드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아이오와주 그린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 했습니다. 이번 금강 세미나 패널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다가 검정고시를 치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 토박이로 자란 이상우는 여러분과 같은 아시아인으로, 한국인으로, 세계최고의 대학(원)인 하버드에 가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하버드에 가서는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경험들을 쌓았는지 이야기 나눌 계획입니다.

■ Rahel Melody Kroeker (여) : 예일대학교

Rahel Melody Kroeker holds a Masters of Ar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from Yale University ('15). Her studies and volunteer work have brought her from Germany to the USA as well as several African countries. She has for example worked with refugees from the Middle East in Basel (Switzerland), as an English teacher in Tanzania as well as in Afghanistan. As a board member of a German NGO that works in development cooperation, she has organized project evaluation trips to Tanzania and participated in networking conferences in Ethiopia and the USA.

라헬 멜로디 크로커는 예일 대학의 국제 개발 경제학 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독일,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연구와 봉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바질(스위스)에서 중동 난민들과 협업한 적이 있으며, 탄자니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영어를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개발 협력에 관련된 일을 하는 독일 NGO의 이사회 멤버로써 그녀는 탄자니아행 프로젝트 평가를 계획하고 에티오피아와 미국에서 네트워킹 회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NGO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배웠는지 금강인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 Stefan Brunner (남) : 제네바 국제개발 연구 대학원

Stefan Brunner is a project manager at the Mercator Foundation Switzerland, where he is leading a threeyear pilotproject, that creates support structures at Swiss universities for student initiatives and projects. He is further responsible for the foundation's support to youth in the areas of volunteering and active in its role in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e is holding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Affairs from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in Geneva and has been a visiting fellow at the McMillan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t Yale University. Among his working experiences are engagements with the United Nations on the classification of internationally responding urban search and rescue teams and with EAPPI as a human rights observer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He is the author of the "Impact Compendium on Youth Exchange An overview of scientific research results on the impact of intercultural exchanges", which has been published in German, English, and French.

스위스 메르카토르 재단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스테판 브루너는 스위스 대학에서 학생 활동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청소년 교환 및 협력 활성화와 자원 봉사의 분야에서 청소년 재단의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제네바 국제 개발 연구 대학원에서 국제 관계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일 대학에서 국제 지역 연구에 대한 맥밀런 센터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스테판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인권 관찰자로서 유엔과 일한 적이 있으며 "청소년 교환에 미치는 영향 개론: 문화간 교류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개요"라는 저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 Aaron Profumo (남) : 예일대학교

Aaron is an actor, producer, teacher, comic, improviser, and recent graduate of the Yale School of Drama where he received his MFA. As a teacher Aaron draws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ranging from Stanislavski, Grotowski, Linklater, Alexander, Fitzmaurice, Bogart, Le Coque, and others, forming a methodology that explores the mind/body divide in acting and creating fully expressive performers and artists that use their whole instrument with ease and free creative impulse. Aaron is a cofounder of RTCstudios, a multimedia arts company seeking to produce, fund, and fully incubate young and mid level budding artists from a range of mediums.

www.AaronProfumo.com

에런 프로푸머는 배우, 프로듀서, 교사, 만화가, 즉흥연기자이며 예일 드라마 대학교에서 최근 MFA(석사)를 받은 졸업생입니다. 에런은 연기교사로서 Stanislavski, Grotowski, Linklater, Alexander, Fitzmaurice, Bogart, Le Coque 외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형성합니다. 그 방법론은 연기로 풍부한 표현을 하는 행위예술가와 자유롭게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창조적인 자극을 활용하는 예술가를 육성하는 것으로 나뉘집니다. 에런은 젊은 신진 예술가를 배양하고자하는 멀티미디어 예술 회사 RTCstudios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 Dao Chantes (여) : 컬럼비아대학교

Dao Chantes is a doctoral candidate studying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Media a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Her research focuses o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interactive media (such as computer games) for teaching and learning. Befo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Dao was born and raised in Bangkok, Thailand where she earned a bachelor degree in industrial engineering. Dao is a visual designer and an amateur artist. She has done many kinds of design projects such as instructional materials, graphical user interfaces, websites, educational games, posters/banners/logos, wedding invitations, etc. Her current obsession is in interior design for small spaces and micro living.

다오는 컬럼비아 교육대학원에서 교수법 기술 및 미디어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교육과 학습을 위한 설계 (예: 컴퓨터게임 등)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컬럼비아에 오기 전에 태국 방콕에서 산업 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오는 비주얼 디자이너이며 아마추어 예술가입니다. 교육 자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사이트, 교육용 게임, 포스터/ 배너/ 로고, 청첩장에 이르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으며, 그녀의 최근 관심사는 작은 공간 및 마이크로 리빙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Part 2. 특강 및 질의(Open Q&A)

■ From Asia to Harvard (아시아에서 하버드까지) [Sangwoo] - 7일(화) 16:00-17:30 /소강당

This panel will be about how Sangwoo Lee started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bone marrow transplant in 2005. He was diagnosed with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in 2004 when he was in a middle school in Korea. He wasn't able to attend a high school due to the disease and had no choice but to take six years off from schooling. In 2009, he took a G.E.D. test and published a book, "무균실 일기 (A Cleanroom Diary)." He taught himself and took SAT and TOEFL in order to apply for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He went to Grinnell College, a small liberal arts college, that has only about 1,600 students in total. He will talk about how he was able to go to Harvard University from a small clean room in a hospital.

이 패널은 이상우군이 2005년에 골수이식을 받은 후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 하게 된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우군은 2004년에 중학생이었을 때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2009년에 그는 검정고시를 치루고 "무균실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을 가르치고 SAT 및 TOEFL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총 1,600명의 정도의 학생이 다니는 미국 중부에 있는 작은 인문 대학인 그린넬 대학에 진학해서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버드에서 정치/외교 교육학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있는 작은 무균실에서 하버드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Jobs in Tech [Thomas, Rahul] - 7일(화) 19:00-20:30 /소강당

The hottest jobs in the market right now are tech-related jobs. Thomas and Rahul are at the center of this market as two talented programmers. They will discuss what it takes to be a programmer and what that means in terms of their daily lives/activities. They will also provide you with tips to enter the market.

요즘 고용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은 기술/테크놀로지 관련 직업입니다. 토마스와 라울은 이 인기시장의 중심에 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능력이 그들의 일상생활/활동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팁을 제공할 것입니다.

■ Get an Education, Not a Degree [Thomas] - 8일(수) 16:00-17:30 /소강당

The best jobs do not require degrees, they require education. Step off the beaten path with Thomas Thomas to see how the best path to success can be through unconventional means. Even without formal degrees, Mr. Thomas is one of the most highly sought after and highly paid programmers in NYC. How can you make companies apply to hire you, rather than having to apply to companies yourself? How should you study now, so that when you graduate you have more than just a diploma? Maybe some of the answers you have been looking for were right in front of you.

좋은 직업은 학위가 아니라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토마스 머피와 함께 경험해 보세요.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머피는 뉴욕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과 보수를 받는 프로그래머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나를 찾아내서 고용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한 졸업장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몇몇의 해답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What is Harvard? (도대체 하버드란?) [Sangwoo]** - 8일(수) 17:30-18:30 /소강당

이상우군은 한국인으로서 하버드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과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버드의 경험'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계획입니다.

■ **NGOs [Dao, Stefan, Rahel]** - 9일(목) 17:30-18:30 /소강당

Nonprofit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crucial to human society and improvement in life standards all over the world. It is easy for you to get involved with programs reaching out to countries torn by wars or hit by natural disasters. Learn how to get involved with the organizations leading these efforts, such as the UN.

비영리단체와 비정부기구는 전 세계 생활수준 향상과 인간 사회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으로 인해 비상상태인 국가나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는 기관인 United Nations(UN)와 다른 기관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 **Human jobs [Diana/ Aaron/ Sangwoo]** - 10일(금) 10:30-12:00 /소강당

Technology has automated many jobs, but the most important jobs will always remain those that require face to face communication with another human. Learn about the challenges facing 21st century workers and how you can best prepare for these jobs.

기술/테크놀로지는 많은 직업을 자동화했지만 얼굴을 맞대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직업은 항상 유지됩니다. 21세기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배워보고 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다.

■ **Full Panel Q & A [All]** - 10일(금) 13:00-14:00 /소강당

This session will be an open-ended panel that will be led by Maria and Mark. Questions for these speakers will be collected throughout the week and during this panel they will be answered or discussed.

이 세션은 마리아와 마크 교수가 주도하는 개방형 패널 형식입니다. 초청한 분들에 대한 질문을 일주일 동안 수집하고, FULL Panel 강연 시간에 그들에게 답변과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mhwang@ggu.ac.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질문이 안 들어오면 마리아와 마크 교수가 질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Part 3. 재미있는 Workshop/Session 선택하기 : Anything-I-Want-Session

■ What is theater (연극이란? 광대와 즉흥의 세계) [Aaron] - 7일(화) 9:00-10:30 /야외

Aaron's classes are an introductory exploration into the world of clown and improv, with a focus on the freeing of physical and verbal impulse through a series of games. We will take play time seriously and make all the serious things silly. Come with your sweatpants and leave your fear behind.

에런의 클래스는 게임 시리즈를 통해 신체적, 언어적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에 초점을 둔 광대와 즉흥의 세계를 탐구 할 것입니다. 진중한 연극 시간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재미있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움은 버리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오세요.

■ Secur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 how to think like a hacker [Rahul] - 8일(수) 9:00-10:30 /사이버강의실

How does information really travel around in the internet? How do hackers really break into your computer and steal things? We will talk about some fundamental concepts around information security and you will get to hack into a real website using the things you have learned!

정보는 정말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전송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해커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걸까? 우리는 정보 보안에 관한 근본적인 개념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배운 것을 사용하여 실제 한 웹 사이트를 해킹해 볼 것이다!

■ Dealing with difficult people (lessons learned as a consultant) [Rahul] - 8일(수) 10:30-12:00 /사이버강의실

Have you ever had to deal with someone who simply wouldn't listen to anything you had to say? In this talk, I will share a few experiences, and a few frameworks which can help you understand difficult people, how they think, and how to motivate them to help you. (Spoiler, you might be difficult yourself!)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과 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 워크샵에서 라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줄 것이며,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프레임워크를 공유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도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 번 배워볼까요?

■ Game Art (게임 아트) [Dao] - 8일(수) 13:00-14:00 /PC실습실

Dao's workshop will explore typography in Illustrator/Photoshop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sign layout/format in order to convey a message of a thousand words in a single picture / infographic.

다오의 워크샵은 한 장의 사진 / 인포 그래픽에 천 단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레이아웃 /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액티비티를 할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쓸 계획입니다.

■ **Web Design (웹아트+디자인) [Dao]** - 8일(수) 14:00-15:00 /PC실습실

Designers are problem solvers. We do more than just make things look pretty. You don't need to be called a designer to be a designer. Topics include how you can use the design thinking process to develop the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typography - using the right fonts for the right jobs.

디자이너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것을 예쁘게 만드는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꼭 디자이너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디자인 사고 과정을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법과 직업에 적합한 글꼴/글자체 사용하기 등을 포함합니다.

■ **Solving miscommunications while working abroad (해외에서 의사소통하기) [Rahel]** - 9일(목) 14:00-15:00 /사이버강의실

At GGU Ms. Kroeker will share insights and lessons learnt of her international work experience. She will teach students how to broaden their horizon and ga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skills. No matter which degree you are studying for, these are crucial skills to learn in an ever more globalized world. Ms. Kroeker will challenge students to think deeper and beyond preconceived concepts and ideas and to work towards becoming holistic and exceptional leaders that will not only make an excellent career for themselves but will also have the capacity and the will to act as positive change makers in the world.

GGU에서 Kroeker씨는 그녀의 국제 업무 경험을 통해 배운 통찰력과 교훈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문화간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상호 작용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전공분야를 공부하든, 점점 세계화되어 작아지는 세상에서 그것들은 언제나 필요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Kroeker씨는 학생들이 깊고 선입견을 뛰어 넘어서 생각하고 도전 할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훌륭한 경력을 만드는 21세기 인간형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 **How to secure and have a successful study abroad experience (해외 유학 및 교환학생으로 성공하기) [Stefan]** - 9일(목) 15:00-16:00 /사이버강의실

Practical example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how it has affected my personal and professional life: high-school exchange, student exchange (visiting scholar), and volunteering abroad. We will recap the theory behind the positive impact youth exchange and volunteering in foreign countries can have on personal and intercultural competencies as well as on biographical pathways. We will then go on to look at practical examples and explore the students' possibilities in this regards.

국제 교류 방법의 실제 예들이 브루너씨 개인 및 직업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니다 (고등학교 교환, 학생 교환 /방문 학자, 그리고 해외 자원 봉사 이야기들). 우리는 개인 및 문화 간 역량 뿐 아니라 전기 경로에 미칠 수 있는 외국에서의 긍정적인 청소년 교류와 자원 봉사 영향의 이론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예제들을 살펴보고 금강학생들의 가능성을 같이 모색할 것입니다.